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본 협회 재무이사,
신규전문대점임강사
함 용 운

학년초에 한번쯤은 전공아닌 강의를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반사회인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설흔이 갓넘은 주제에 무슨 인생의 선배냐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대학을 마치고 군을 제대한 후에야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로 부터..... 후에 그 친구와는 계속 만나게 되었고 둘도없는 친구가 되었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대화에 있어 진지하며 남의 말을 우선 듣고 절대 이야기중 가로 채지 않으며 조용히 경청하고 생각하며 말을 하곤 합니다. 모든 말은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며, 적극적이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그와의 대화가운데 이와같은 영향력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대학시절에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지나간 대학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보람되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학년 초부터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이나 모든 생각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행하여야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며 행하지 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은면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어 친분이 두터워 질 것이며 부정적으로 나쁜면만을 생각하면 나쁜 친구가 되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법칙을 생각할때 마음속에 「positive thinking」을 받아들여 실천하면 이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면된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것은 참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바른 생각 하나로 대로를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실의와 절망의 구렁에서 허우적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적극적 사고는 특히 물리치료사에게도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PT (physical therapist)가 'PT(positive thinking)의 신념을 갖아야 pt. (patient)에게 꾸준하고 계속적인 치료, 훈련이 가장 빠른 건강회복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것입니다. 오랜기간을 병상에 있는 환자는 정신적인 자포자기 등으로 인하여 회복을 중단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을 생각할 때 이와같은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진 마음, 근육등을 재교육시키려는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어떻게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유발은 환자의 능동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적자극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못지않게 내적자극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내적요인과 외적자극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개념이어서 실제적 존재가 아니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수업에 출석한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장차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내적가치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에 있어서도 내외적인 면을 함께 다루는 중차원적 접근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협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원 모두가 믿을 수 있고, 힘이 되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협력할 때 협회는 어느 협회보다 진취적인 협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협회는 확실회 회원이 바라는 믿을 수 있고 힘이 되는 협회가 되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국이 마련되었고, 적절한 예산이 운영되며, 협회 회보도 계속 발간되며, 등등 그런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으므로 내실을 기하는 협회운영에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협회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환자치료에 있어서나 협회에 있어서나 모든 일상생활에 이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physical therapist is positive thinking. (PT is PT)이라는 문장이 우리들을 즐겁고 보람찬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지부장 및 협회 이사 연석회의

일시: 1981. 7. 4-5

장소: 서울대학병원

1. 지부 및 분회활동 강화방안

- 사회 양성 주 부회장 -



1) 중앙회에서 지원방안

집담회등 모임시에는 회원들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도 정식 공문을 보내어 회원들이 참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집담회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지부회원에게는 집담회 소식등을 중앙회에서는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지부에서는 요망사항을 중앙회에 연락하고 중앙회는 지부의 요청사항을 도와 더욱더 협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2)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북지부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지체부자유아들에게 무료상담 및 치료등을 회원들과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지부에서도 국민학생과 중고생 및 극빈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치료해 주므로 봉사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가 될 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계몽운동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 있으리라고 보고 지부장들은 각 지방신문을 자료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면 중앙회에 연락하여 주시고 복지이사는 각 지부의 봉사활동 조직등을 탐방하여 중앙회를 통해 협회보에 수록하도록 한다.

지방에는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도 필요하지만 의료인 및 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재인식이 필요하므로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

3) 집담회 개최

충청지부 및 여러 지부가 매달 모임을 갖고 있

으나 중앙회나 학교등이 주관하여 1년에 한두번만 이라도 강의연사를 지정하여 집담회를 각 지부별로 개최하도록 하며 각 지부에서는 집담회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집담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보고한다.

4) 회원친목 모임

협회 회원들의 모임인 낚시, 등산, 바둑등의 모임은 계속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며 친목도모로써 협회 야유회는 봄에 가졌으며 체육대회는 가을에 있을 예정이다.

2. 교육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책

- 사회 오경환 학술이사 -

지난 6월 13, 14 일을 거쳐 신구전문대학 물리치료과의 협조아래 병원실습, 교과과정, 국가시험문제등에 대해 총 14명이 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학교의 병원실습에 관한 문제는 첫번째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실습하며 학교 교과시간에는 국가고시 및 전반적인 의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임상 실습을 없애고 수업시간에 협회주관하에 임상실습 Video를 만들어 각 학교에 약간의 대여금을 받고 빌려주어 그 자금을 협회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번째는 토요일 오후를 완전히 실습생들만으로 해서 각 병원 실장님들이 책임지고 기구설명 및 병원특성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현 실정상으로는 수업시간에 임상실습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관계당국과 만나 협의하여 결정 짓기로 했다.

또, 국가고시 문제를 개정하여 그것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임상에서 필요하지 않는것을 교과과정에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것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Doctor들이 order를 내리면 이것이 order가 아니라 처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program을 짜서 progress note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더 보강하도록 했다.

국가고시 문제 개정은 필기고사의 경우 전공 과목이 110문제 공통과목이 60문제이므로 전공과목이 물리치료개론에서 운동치료를 분리하고 문제수를 재조정하여 전기치료 25문제, 광선치료 5문제 근육검진 및 평가가 15문제, 의수족과 보조기 10문제, 수치료 5문제로 전체 60문제이며, 운동치료 개론은 50문제로써 운동치료 30문제, 임상운동학 10문제, 임상의학 10문제로 논의했으며 실기고사의 문제는 각 학교에서 출제하고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선정만 하도록 하는 것과 실기고사때 10-20명이 한 Group이 되어 심사위원은 Slide등을 동원하여 구두로 물어보고 학생들은 필기로 대답하여 사후에 채점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활의학과 Doctor나 국립보건의원등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7월말 이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과서 및 참고문헌을 통일하도록 하고 문제집등은 협회주관하에 각 학교에 계신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여 발간토록 하였다.

3. 미납회원 처리

- 사회 함 용 운 재무이사 -

4년이상 미납회원 34명에 대해서는 제명하기로 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했으며 통지후 1개월이 지나도 응답이나 이의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제명당한 회원이 협회에 재가입하려면 10년간의 입회비와 그동안 밀린회비를 내고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나야만 회원으로 가입될 수가 있다.

그리고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회원일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회원증등을 발급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도록 하며 중앙회에서는 각 지부장을 통하여 현지에 근무하는 회원과 미취업 회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4. 미취업 회원에 대한 대책

- 사회 정 진 우 회장 -

물리치료가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이 너무 많으므로 병원만을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스포츠방면으로는 농구나 배구팀들의 스포츠인을 관리하는 체육인 조련사등과 다른 방면으로는 각 병원마다 근전도를 많이 사용하므로 근전도 공부를 하여 근전도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E. E. G, E. C. G제도 물리치료 소관으로 할 수 있으며 Cardiac rehabilitation도 우리의 분야에 넣도록 해서 모두 법적인 제도로 우리의 것을 만들어 취업의 문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요육교사도 간호원 면허가 없는 간 호대학 출신이 양호교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문교부와 빨리 논의하여 면허증을 가진 물리치료를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취직이 안된 사람들은 training 이라도 물리치료가 필요한 양노원이나 고아원등의 실태조사를 하여 이런 방면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보 및 의료숫가, 개업관리 문제

- 사회 석 일 현 대의원회의장 -

의료보험숫가를 인쇄하여 보낸 일반숫가표는 서울대학병원을 기준하여 보낸 것으로 Exercise의 난이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의료숫가 개정에 대해선 7월중에 보사부 보험급여과 직원을 초청하여 의료보험 운영에 대해 자세한 강의를 듣기로 했다.

6. 대정부 (보사, 문교, 외무) 및 대국회 로비활동에 관한 건

- 사회 황 환 익 섭외이사 -

보전직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4급에서 2급까지는 되어야 하며 이문제는 보사부 의정국장과 의료제도과장과 논의하여 결정하며 임상병리사나 치과 기공사, 방사선사 협회등은 해외로 나가는 회원들에게 협회 추천서를 해주면 보사부의 의뢰만으로 해외에 나갈수 있으므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

7. 회원연수 교육의 당면화 및 의무화

- 사회 박 찬 의 공보이사 -

회원연수 교육을 제도화하여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열어 연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국립보건 연구원에 협조의뢰하여 국가적인 입장에서 협회주관하에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각 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토·일요일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 1981. 6.24 의료숫가표(의보와 일반) 제작배부. 전국 병·의원에 각 2매씩 발송.
2. 1981. 6.26 전국지부장 이소영씨 협회 방문. 소속 회원 미납회비 및 81년 회비 납부.
3. 1981. 6.27 캔리상사에서 협회 사무국 방문. TENS와 Paraffin bath 공급에 따른 협의.
4. 1981. 6.30 1) 중부분회 최영덕 회원 사무국 방문. 소속회원 회비납부 및 "동통에 대한 물리치료" 팜프렛 6권 배부.
2) 재무이사 함용운씨 협회 사무국 방문. 재무결재 및 성남분회 신입회원(27명)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 납부.
3) 신흥철(전북대의원), 홍정선(홍보부장), 이재형(충청회원), 협회 사무국 방문.
5. 1981. 7. 1 정진우 회장 협회 사무국 방문. 이사 및 지부장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

6. 1981. 7. 2 홍보부장 홍정선씨 사무국 방문.
회보 편집작업.

7. 1981. 7. 4 6/00 PM~7.5 12/00 AM
제 3 차 정기이사회 및 지부장 연
석회의 개최.

장소: 서울대학병원 우이동 산장
참석자: 정진우, 양성주, 배승학
오경환, 함용운, 박찬의
강정구, 황환익, 최치욱
표성봉, 김기호, 채수성
박정기, 윤진영

내용: 81년도 전반기 사업평가
및 후반기 사업계획
기타 당면과제 연구.

8. 1981. 7. 6 “해외취업희망자 등록안내” 전
회원에게 공문 발송.

9. 1981. 7. 9 7/00 PM~10/00 PM 의료보
험 숫가관리위원회 개최.

장소: 우신향 병원
참석자: 김형섭, 정진우, 김용주
석일현, 배승학

내용: 1) 개정된 의보숫가 (물
리치료부분)에 대한 분
석 및 평가
2) 개정된 의보숫가에 대
한 설명과 의보시대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에 대
한 보사부 관계관 초청
강연을 갖기로 결의함.

10. 1981.7.11 전국회원 주소록 등사배부(각 지
부로)

11. 1981.7.13 “개정된 물리치료(의료보험) 숫
가 및 운용에 대한 특강” 작명.의
원장 및 물리치료 실장에게 공문
발송.

일시: 1981.7.23 6:30 PM

장소: 서울대학병원 C강당

12. 1981.7.14 1) 전북대의원 신흥철회원 사무
국 방문. 신입회원(19명) 입
회원서 및 회비납부.

2) 함용운 재무이사 협회사무국
방문. 재무결제 및 비품구입.
녹음기 카세트(National RX-
1900 SB ₩110,000) 구입

3) 강원지부장 김기호씨: 유사
물리치료소 2개 적발보고.

4) 제 3 호 협회지 발송(서울, 경
기)

13. 1981.7.15 1) “의료기사(물리치료사) 국
가고시 개정에 대한 건의” 국
립보건원장에게 공문발송.

“1982년도 국가고시 문제
출제 위원선정” 국립보건 연
구원장에게 공문발송.

정진우 회장, 오경환 학술이사
협회사무국 방문.

2) 제 3 호 협회지 발송 작업

(지방)

3) 수원분회장 오경환씨 협회 사
무국 방문. 신입회원(20명)
입회원서 및 81년 회비 접수.

4) 회관건립기금 정기예금
1,000,000원 총계 3,000,000원

14. 1981.7.20 북부분회 신입회원(26명) 입회
비 및 81년 회비 접수.

15. 1981.7.23 1) 의보숫가에 대한 특강
(6:30 PM~)

장소: 서울대학병원 C강당
장사: 보사부 보험급여과

참가자: 심홍섭 (No.305) 이재형 (No.253)

강정구 (No.195) 황환익 (No.159)

오경환 (No.141) 조경희 (No.440)

원종일 (No.472) 김홍배 (No.445)

이선배 (No.633) 최명현 (No.425)

김정현 (No.209) 김정숙 (No.104)

양임규 (No.333) 함용운 (No.285)

김영민 (No.669) 백인자 (재독 P.T)

박찬의 (No.175) 정진우 (No.63)

김용주 (No.224) 김형섭 (No.69)

오경환 (No.141) 배승학 (No.256)

2) 의료기사 연합회 회장단 회
의에 정진우 회장 참석.

일시: 1981.7.23 12:00 ~
2:00 PM

장소: 의료기사연합회

< 81년 회비 납부자 >

조경희 (No.440) 최미숙 (No.685) 권춘숙 (No.692)

임광희 (No.449) 이소영 (No.96) 고은주 (No.569)

고경철 (No.492) 박경옥 (No.480) 이호근 (No.662)

김명훈 (No.785) 최규연 (No.732) 이정래 (No.717)

변옥희 (No.686) 장인수 (No.631) 이승택 (No.408)

김선신 (No.419) 전은실 (No.661) 김인성 (No.503)

박원희 (No.754) 김숙자 (No.728) 김선영 (No.759)

< 미납회비 납부자 >

고은주 (No.569 80년 미취업)

고경철 (No.492 79년)

김인성 (No.503 79년)

박윤진 (No.67 77. 78. 79. 80년)

< 찬조금 납부자 >

1. 손토비아 (명예회원 8,000)

2. 위원회비 찬조금 납부자 (각 10,000원씩)

함용운 (No.285) 김기호 (No.346)

오경환 (No.141) 강정구 (No.195)

박정기 (No.181) 표성봉 (No.129)

최치욱 (No.16) 채수성 (No.160)

정진우 (No.63) 박찬의 (No.175)

양성주 (No.227) 황환익 (No.159)

3. 의료숫가관리위원회 모임시 저녁 식대 찬조
김용주 (No.224)

< 81년 신입회원 입회등록자 명단 >

광주보건전문대

이상순 (No. 808) 박경란 (No. 823) 김정숙 (No.)
 김승래 (No. 863) 김진자 (No. 880) 박윤화 (No. 814)
 신금숙 (No. 832) 박경희 (No. 824) 김정숙 (No. 869)
 한민숙 (No. 904) 이현숙 (No. 882) 김영현 (No. 858)
 정몽주 (No. 889) 신승이 (No. 835) 우기중 (No. 851)
 김중현 (No. 872) 최두래 (No. 903) 전민호 (No. 927)
 송정미 (No. 830) 박경희 (No. 818)

신구전문대학

김시정 (No. 896) 이태영 (No. 833) 박순애 (No. 873)
 이종배 (No. 798) 이한익 (No. 797) 이영란 (No. 931)
 정영복 (No. 946) 김주화 (No. 892) 신순덕 (No. 815)
 홍유미 (No. 941) 김영옥 (No. 925) 이희옥 (No. 958)
 이미경 (No. 928) 우윤숙 (No. 911) 강명혜 (No. 901)
 김태순 (No. 841) 김순경 (No. 923) 정신숙 (No. 887)
 김성희 (No. 922) 이애란 (No. 801) 안상임 (No. 920)
 박행자 (No. 949) 이종운 (No. 843) 정홍진 (No. 929)
 백윤경 (No. 837) 진춘장 (No. 918) 민중희 (No. 917)
 김용숙 (No. 849) 김경선 (No. 890) 백혜경 (No. 895)

원광보건전문대학

전건식 (No. 790) 장철웅 (No. 795) 정영현 (No. 802)
 광매덕 (No. 804) 노미숙 (No. 806) 조성태 (No. 809)
 강인숙 (No. 819) 김정임 (No. 859) 이동엽 (No. 883)
 정태훈 (No. 884) 진희선 (No. 891) 최영범 (No. 897)
 안영희 (No. 907) 김영현 (No. 912) 김송준 (No. 934)
 박은경 (No. 938) 임명수 (No. 954) 권윤애 (No. 962)
 이행규 (No. 964)

동남보건전문대학

한덕현 (No. 947) 오복희 (No. 939) 최용암 (No. 898)
 이희숙 (No. 915) 박진령 (No. 894) 박명희 (No. 821)
 현명호 (No. 930) 이미주 (No. 816) 김경숙 (No. 874)
 전영혜 (No. 846) 배성일 (No. 791) 조영순 (No. 870)
 김인숙 (No. 937) 천연화 (No. 906) 송규현 (No. 803)
 강인숙 (No. 942) 임승엽 (No. 856) 이순자 (No. 924)
 강선옥 (No. 831) 나준택 (No. 926)

고려보건전문대학

박정호 (No. 881) 이경희 (No. 879) 이한석 (No. 902)
 김희완 (No. 955) 신기문 (No. 956) 박철 (No. 948)
 박은영 (No. 871) 구임순 (No. 867) 장문숙 (No. 865)
 박미원 (No. 909) 오정만 (No. 952) 우광석 (No. 957)
 박명숙 (No. 916) 김수미 (No. 875) 민영기 (No. 899)
 현숙 (No. 862) 이향덕 (No. 857) 한주원 (No. 959)
 전경훈 (No. 905) 정영희 (No. 943) 강형근 (No. 854)
 이원애 (No. 847) 박찬호 (No. 960) 명성호 (No. 965)
 신윤경 (No. 844) 양경희 (No. 913) 이석순 (No. 886)
 김혜순 (No. 848)

< 누락자 명단 >

미납회비 납부자

김정희 (No. 504 79. 80년)
 홍완성 (No. 593 80년)

81년 회비 납부자

구애련 (No. 42) 임광수 (No. 238)

구회서 (No. 191) 주경애 (No. 366)

※ 정정

3호에 나간 No. 887 김경희는 No. 587입니다

※ 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자 명단에 착오를 발견하
 신 분이나 누락된 분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사무국장님께

지난 1월말 정기총회때 많은 협회 회원들을 만나
 고 헤어진 후 2월 13일에 다시 이곳 리비아로 왔습
 니다.

진날 동안 협회의 새로운 회장단과 그의 회원들의
 상호협조단결로서 이곳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나로
 서는 많은 발전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내가 해외에 첫발을 디딘지 벌써 3년이란 세월속
 에서 많은 후배들이 나왔고 협회를 볼때 마다 더욱
 더 협회가 알차고 항상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
 끼지는군요.

여러 선배 및 동료 회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회장단의
 힘찬 첫걸음을 보았을때 마음 든든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그동안 前 백진 회장님이 간혹 편
 지를 했었고 그외에 협회소식은 국제이사 이영남씨
 등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리치료 회지 1, 2호를 받아보니
 많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사무국장님의 노고
 가 눈에 선합니다. 이곳 리비아에 있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협회보를 보내주시니 더욱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보조하여 수고하는 백
 선생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이곳에는 나와 율효근씨와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 계약 완료이니 아직 1년정도 남았지요.

무엇보다도 협회의 발전과 하루속히 고국에 돌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회장단 여러분께 안부 전해 드리고 사무국
 장님의 건강을 빌며 협회 회원들의 알찬 하루가 되
 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1981. 6. 25

리비아에서 오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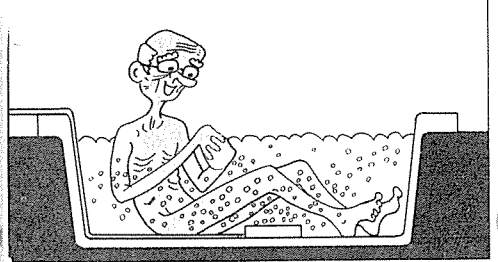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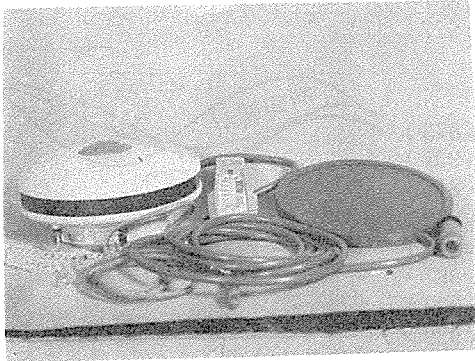
☐ 회원 취업안내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이나 직원을 응원하
 실 병원은 협회에 연락을 주시어 협회를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超音波氣泡浴

WHIRL-POOL HUBBARD TANK 의 대응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추천합니다.

- 편집실 -



전신피부건강과 血行障害로 인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물리치료기가 大徳綜合機器 (株)에 의하여 수입판매되고 있으며 國産品도 生産되고 있다.

日産 (MEDO)	280,000
(SAITTO)	165,000
國産 (DAIDUCK)	88,000

치 료 효 과

중풍, 신경통, 류마치스, 위하수, 신경마비, 냉증, 치질, 요통, 야뇨증, 정력감퇴 등이며 만성 피로 회복과 자율신경 실조 및 내분비기능을 보강하는 목적으로도 효과가 빠르다.

※ 투 고 환 영 ※
 참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논단 (1면), 학술 및 집담·좌담회 초록 (2면)
 지부·병원·회원 탐방·회원작품 (3면)
 협회소식·건의·질의·응답·광고 등 (4면)
 원고마감: 매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로구 관훈동 198~36 (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